

대피 시의 포인트

쓰나미 발생 시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서둘러 높은 곳에 대피합니다.

자기가 느낀 흔들림의 정도로 판단하지 말 것

흔들림이 작아도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흔들림을 느낀 경우에도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시 차량을 쓰지 말 것

원칙적으로 차량을 타고 대피하지 마십시오. 교통체증으로 인해 대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일찍, 「더 높은 곳」으로 대피

침수가 시작되면 분초를 다둡니다.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대피합니다. 가까운 아파트나 빌딩 3층 이상에 올라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쓰나미가 물러난 후의 대피소 생활

침수로 인해 가까운 대피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거주하시는 구 이외 대피소를 포함한 다른 대피소에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기관리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page/0000605273.html>

쓰나미 대피 시설 (쓰나미 대피 빌딩, 수해 시 대피 빌딩)

2013년 8월에 오사카부가 작성한 쓰나미 침수 상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시민 여러분이 쓰나미 발생 시에 일시적 또는 긴급적으로 대피·퇴피하는 시설로서 니시요도가와구, 고노하나구, 미나토구, 다이쇼구, 니시나리구, 스미노에구, 요도가와구, 후쿠시마구, 니시구, 나니와구, 기타구, 미야코지마구, 주오구, 아사히구, 조토구, 쓰루미구, 스미요시구를 대상으로 쓰나미 대피 시설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의 협조하에 협정을 맺고 쓰나미 대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대피 시설의 지정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page/0000138173.html>



쓰나미 대피 시설의 마크

다이쇼바시 다리의 쓰나미 비석

1854년의 대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쓰나미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여 후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다이쇼바시 다리 히가시즈메 (북쪽) 에 있는 안세이 대 (大) 쓰나미 비석 (1855년 7월 건립) 입니다.

소재지 : 나니와구 나니와구 사이와이초 3초메 9번

비 문 : 「대지진이 일어나면 꼭 쓰나미가 덮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